목포~부산 2시간 20분…남해안 고속철도 시대 연다

르포-9월 개통 '목포~신보성' 구간 열차 타보니

시속 200㎞로 목포~해남~장동역 82.5㎞ 거리 40여분만에 주파
전남 서부·중부권 주민들 철도 이용 용이해져 내륙 이동권 강화
국토부와 협의해 무궁화호 포함 하루 2회 이상 열차 운행 계획

김영록 전남지사가 10일 오후 전남 남해선 '목포~보성' 구간의 영업시운전 열차에 탑승해 관계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철로가 개통되면 서남권 교통 편의 증진과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제공〉

"7624번 열차. 발차하겠습니다." 10일 오후 3시 36분 기관사의 안내방송과 함께 목포역 플랫폼에 정차해있던 KTX 이음 EMU-260열차가 운행을 시작했다. 열차는 전남도민의 염원이었던 전남 서부권과 중부권을 가로지르는 철로(목포~신보성)에 들어섰다. 첫삽을 뜬지 23년 만이다.

고속열차는 출발역인 목포역을 떠난 지 얼마되지 않아 시속 200㎞를 넘어섰다. 목포~신보성 구간은 최대 시속 200㎞까지 운행이 가능하게 설계된 단선 전철화 구간으로 열차는 출발한 지 9분 만에 첫번째 역인 임성리 역에 도달했다. 잠시 풍경에 한 눈을 판 사이 열차는 어느새 영암군을 지나고 있었다. 이어 해남, 강진, 장흥, 장동역을 가로질러 출발 41분 만인 오후 4시 17분 마지막 역인 신보성역에 도착했다. 무려 82.5㎞나 되는 거리를 40여분만에 주파했다. 열차는 종착역인 신보성역에서만 정차했다. 목포~신보성 간 구간은 오는 9월 개통을 앞뒀는데 이날 전남도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사전 시승, 점검 열차에 탑승할 수 있었다. 이날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이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오는 2030년이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20분대 도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남해안 고속철도 시대의 신호탄을 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사전 점검식을 가진 목포~보성 간 철도는 지난 2002년 첫 삽을 뜬 지 23년이 흐른 오는 9월 개통을 앞뒀다. 목포~보성 간 철도는 목포 임성리에서부터 영암, 해남, 강진, 장흥, 장동, 신보성을 잇는 구간으로 총사업비 1조 6459억원이 투입된 여객과 화물 운송이 모두 가능한 단선 전철화 노선이다.

지난 2000년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남해안 철도 목포 임성~보성 구간은 2003년 9월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완료한 뒤 착공했으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거나 감사원이 재검토를 주문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행히 민선 7기와 8기에서 들어서 예산확보로 빠른 개통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면서 오는 9월 개통이 가능하게 됐다.

이 구간의 개통은 수십년간 철도 이용에서 소외됐던 전남 서부·중부권 도민들에게 철도와 역을 선물하고, 철로 이용의 용이성과 도서 및 내륙으로의 이동권을 강화했다는 데 있다.

목포~보성 구간은 또 현재 실시설계에 착수한 순천~신보성 구간과 연결되는 노선으로, 오는 2030년이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어 영호남 교류 및 전남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성~순천 구간의 미개통으로 당장의 열차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남도는 이 구간이 갖는 의미를 감안, 국토부와 협의해 디젤열차인 무궁화열차를 포함해 고속열차 등 하루 2회 이상의 열차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당장,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해 목포역에 도착한 관광객들의 목포~보성 구간을 활용해 영암, 해남, 보성 등 관광이 가능한만큼, 꾸준히 열차 배차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와 지자체는 목포~보성 구간인 영암 해남, 강진, 장흥, 장동, 신보성역에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노선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사전 점검에 참여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남해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전남의 균형발전과 남해안 관광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안전 확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하차 환경 마련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반환점 돈 광주시의회, 서민 위한 정책·지방분권 강화 등 성과

보수단체 지원 조례·용적률 상향 조례 흠결도

후반기 의정활동의 반환점을 돈 제9대 광주시의회가 10일 의정활동 주요 성과를 내놨다.

시의회에 따르면 후반기 시의회는 지난해 7월 사상처음으로 첫 여성 의장을 선출해 올해 6월까지 총 8회, 119일간 회의를 운영해 1년의 3분의 1 가량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00% 본회의 참석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병가 의원을 제외하고 높은 참석률을 유지하며 조례안 203건, 예·결산안 16건, 동의·승인안 68건, 건의·결의안 14건, 기타 50건 등 총 351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광주시의회는 시정질문(131건), 5분 자유발언(31건) 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했으며, 정책토론회(46회), 의원연구모임(13회), 정책네트워크 운영(19회), 시민여론조사(5회), 정책연구용역(6회) 등 활발한 정책 연구 활동을 통해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자평했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사례가 대상을 받았으며,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의 기록도 세웠다는 것이다.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지방의회법 제정 TF'를 구성·운영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 등에 직접 제안, 지방분권과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선도적으로 노력한 점도 좋은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도심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둘러싼 잡음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을 옹호하는 시민단체 지원 조례안 제정 논란 등은 흠결로 남았다.

마지막 1년의 임기를 남기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을 두고 일부 상임위에서 위원 선임을 놓고 이견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간에 감투싸움 지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평가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의회, 국립의대 설립 지원위원회 가동

전남도의회가 10일 제 1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설립 안건을 원안 통과시켰다.

전남 통합 국립의대 특위 설립안건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모든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전남도의회 전남 통합 국립의대 특위는 전남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목표로 구성된 도의회 차원의 전담 기구다.

의과대학은 단순한 고등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생명권 보장과 인구소멸 대응,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전남 국립의대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도민의 30년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라는 게 도의회 설명이다.

김태균 의장은 "의회 차원의 전담 대응 기구로서 전남도와 협의해 정부 설득, 전략 수립, 대외 홍보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 예타 탈락

효천역 경유 노선 추가 등 대안 마련…예비타당성 재신청 추진

광주~나주광역철도선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가 진행한 '2025년 제7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이 예타에서 탈락했다. 경제성(B/C) 등 수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상무역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까지 총 26.5km를 연결해 도시첨단산단과 에너지밸리 등 주요 산업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 균형발전과 광역교통체계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비 2000억원 이상과 연간 운영비 130억원이 소요된다는 만큼 광주시는 수요 확보 차원에서 효천역 경유 노선 변경을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도·나주시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섰으나 결국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10일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광주시는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충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번 예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개선안을 마련, 전남도·나주시와 협력을 통해 예비타당성 재신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호남권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효천 경유 노선으로 사업을 다시 구성할 계획"이라며 "현실적 수요 반영과 함께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가 효천역 경유 노선을 포함해 최적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으며, 2023년 6월부터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